

## 그랜드 래피즈 한인 교회

2018 04 14



### 평신도 후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행사 지난 달에 있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랜드 래피즈 한인 교회 <고난 주간 기간 중> Mar 26, 27, 28, 29 (월, 화, 수, 목) 저녁 7:30 - 9:30 혹은 10 시까지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드라마 바이블 신약 복음서를 읽고 듣는 성경 통독에 참석했습니다. 간단한 예배 후 매일 4 일동안 시행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재미있고 그 시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임재,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히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생애 언제나 기억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교회와 김기웅 목사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또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웠습니다.

주경자

### 목회자 후기

시행기간: 2018 년 고난 주간(3 월 26 일(월)~29 일(목), 매일저녁 7 시 30 분~10 시까지

저는 지금 시무하는 그랜드래피드 한인교회(이하 한인교회로 칭함)에서 지난 11 년 동안 매년 첫 주에 신구약 통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에 시무하던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도 10 년간 역시 신구약 통독을 시행하였습니다. 합계 21 년동안 통독하여 보통 속도의 1.3 배속으로 읽을 정도로 속달 되었지만, 하루 3 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은 1 주가 걸리고, 구약은 3 주가 걸리는

기간은 시간과 체력에 많은 부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다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매번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경듣기 프로그램을 찾게 되고 몇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KMC 찰스 김 목사님을 통하여 “드라마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 받았습니다.

4 복음서를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하여 듣고 따라 읽으면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많은 은혜체험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성경낭독 프로그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린 사람의 목소리, 제자들의 만류에도 더 높이 외치는 두 맹인의 목소리는 현장에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체험을 느끼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보에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소개하며 주일 예배 후 광고시간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까지 광고하였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은 오래된 버전에는 설치가 안됩니다. 비교적 신형 버전에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광고 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것은 연세가 7,80 대이신 권사님 두 분이 이번에 저녁 늦게까지 매일 참석하셔서 같이 통독을 하셨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엄두가 안나셨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더니 매우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라마 바이블’이 소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주신 찰스 김 목사님과 교단에 감사드립니다.

2018 년 4 월 16 일

그랜드래피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기웅 올림